

안산, 쏘다 하면 '골드'... 한국 양궁 단체전 금 '씩씩이'

2021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남녀단체 이어 혼성단체 금메달

한국 리커브 양궁이 2020 도쿄올림픽에 이어 2021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도 단체전 금메달을 싹쓸이했다.

안산과 김우진은 2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양크턴에서 열린 대회 5일째 대회 혼성 단체전(혼성전) 결승에서 러시아의 옐레나 오시포바-갈산 바자르자포프 조를 6-0(38-36 39-36 37-33)으로 완파했다.

앞서 결승이 열린 남녀 단체전에서 금메달 2개를 수확한 한국은 혼성전 결승에서도 이겨 이 대회 단체전에 걸린 3개의 금메달을 모두 싹쓸이했다.

한국은 세계선수권에서 혼성전이 도입된 2011년 대회 이후 이번까지 6개 대회의 혼성전 금메달을 다 가져왔다.

안산(광주여대)과 김우진(청주시청)은 남은 개인전에서 3관왕에 도전한다.

2달 전 일본 도쿄에서 사상 첫 올림픽 양궁 3관왕에 올랐던 안산은 2개 메이저 대회 연속으로 3관왕에 등극할 기회를 잡았다.

만약 안산과 김우진이 개인전 금메달까지 모두 가져온다면, 한국 양궁은 2009년 울산 대회 이후 12년 만에 세계선수권 리커브 전종목 석권의 위업을 이룬다.

앞서 1997년 빅토리아(캐나다) 대회와 2005년 마드리드(스페인) 대회, 2009년 대회에서 한국 양궁은 총 3차례 전종목 석권을 해낸 바 있다.



안산이 25일(한국시간)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양크턴에서 열린 2021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여자단체전에서 활을 겨누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계적으로 양궁 평준화가 가속화한 2010년대부터 '최강' 한국 양궁에도 세계선수권 전종목 석권은 매우 어려운 일로 여겨졌다.

특히 2019년 스페르토헨보스 대회에서 혼성전 금메달 1개에 그쳤던 한국 양궁은 이번 대회에서 최소 3개의 금메달을 확보하며 자존심을 회복했다.

안산과 강채영(현대모비스), 장민희(인천대)로 이뤄진 여자 대표팀은 단체전 결승에서 멕시코를 5

-3(53-54 55-54 55-53 56-56)으로 제압했다. 한국 여자 양궁은 2017년 멕시코시티 대회 이후 4년 만에 정상에 복귀했다.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는 김우진과 오진혁(현대제철), 김제덕(경북일고)이 미국을 6-0(54-53 56-55 57-54)으로 완파했다.

남자 양궁이 세계선수권 단체전 금메달을 따낸 것은 2015년 코펜하겐(덴마크) 대회 이후 6년 만이다.

개인전에서 16강 탈락해 그랜드슬램 달성에 실패한 오진혁은 개인 통산 5번째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거머쥐며 아쉬움을 달랬다.

한편, 한국 컴파운드 양궁이 8년 만의 '노골드'로 2021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마쳤다.

송운수(현대모비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양크턴에서 열린 대회 6일째 컴파운드 여자 개인전 8강에서 안드레아 베체라(멕시코)

와 숏오프 끝에 143-143(9-9+)으로 졌다.

숏오프에서 똑같이 9점을 쏘지만 베체라가 과녁 중심부에 더 가까이 쏘 4강에 올랐고, 송운수는 탈락했다.

이로써 컴파운드 대표팀은 이번 대회를 '노골드'로 마쳤다. 대표팀은 혼성 단체전에서 김중호(현대제철)-김윤희(현대모비스)조가 따낸 동메달 1개에 만족해야 했다. /연합뉴스

“울 뻔 했다” 김태진, 생애 첫 만루홈런

KIA, SSG 랜더스 꺾고 2연승



“거의 울 뻔했다”며 만루홈런 주인공 김태진이 씩씩하게 웃었다.

KIA 타이거즈가 26일 챔피언십 필드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의 시즌 15차전에서 6-5 승리를 거두며 2연승에 성공했다.

3루수 겸 5번 타자로 선발 출전한 김태진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면서 이 경기의 주인공이 됐다. 5회말에는 김태진에게 환호가 쏟아졌다.

2-0으로 앞선 2사 만루에서 김태진이 이날 경기 세 번째 타석에 섰다.

앞선 타석에서 삼진, 1루 땅볼만 기록했던 김태진이 초구 볼을 지켜본 뒤 가브리엘의 2구째 슬라이더를 잡아당겼다. 방망이를 떠난 공은 폴 안쪽으로 떨어졌다.

김태진의 이적 후 첫 홈런이자 자신의 첫 만루홈런이었다. 올 시즌 팀의 첫 '그랜드슬램'이기도 했다. 또 NC 소속이었던 지난해 7월 5일 KIA를 상대로 한 홈런 이후 1년여 만에 기록한 '한방'.

김태진의 '깜짝 홈런'으로 6-0을 만든 KIA가 6회초 수비에 들어갔다.

5회말 천국을 경험했던 김태진이 이어진 수비에서는 지옥을 맞았다.

5회까지 1피안타 4사사구 무실점을 기록한 멧덴이 6회 다시 마운드에 올랐다.

첫 타자 최주환과의 승부. 윌리엄스 감독이 시프트를 걸어 3루수 김태진을 1·2루 사이에 세웠다. 그리고 김태진을 향해 땅볼 타구가 향하면서 시프트가 적중한 것 같았다.

하지만 한 차례 공을 더듬은 김태진이 1루에 악송구하면서 선두타자가 살아나갔다.

한유섭을 3루 땅볼로 잡은 멧덴은 박성환에게 중전안타로 점수를 내준 뒤 이날 등판을 마무리했다. 두 번째 투수 고영창이 안상현의 땅볼로 투아웃은 만들었지만, 이재원과 최지훈에게 연속 안타를 맞고 물러났다. 이어 좌완 이준영이 출격했지만 추신수의 우전안타가 나왔고, 폭투까지 나오면서 순식간에 6-4까지 점수가 좁혀졌다.

김태진의 실책으로 시작된 악몽의 6회는 쉽게 끝나지 않았다.

이어진 2사 2루에서 김강민의 땅볼 타구가 3루로 향했다. 3루 땅볼로 이닝이 마감되는 것 같았지만 김태진이 이번에는 포구 실책을 하면서 추신수가 홈에 들어오는 장면을 지켜봐야 했다.

KIA는 결국 6회 2사에서 장현식을 조기 투입해 승리 지키기에 나섰다. 장현식이 초구에 최정을 유격수 땅볼로 잡으면서 김태진 6회를 마무리했고, 7회 연속 안타의 위기를 넘긴 뒤 8회 투아웃까지 책임지고 물러났다.



26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1 프로야구 SSG 랜더스와 KIA 타이거즈 경기. KIA 5회 말 2사 만루에서 5번타자 김태진이 만루홈런을 때린 뒤 주루하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시 반 박자 빠르게 마운드에 오른 마무리 정해영이 볼넷 하나는 내렸지만 1.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고 22번째 세이브를 기록했다. 장현식도 23홀드로 KT 주권과 다시 홀드 공동 1위 자리에 올랐다.

김태진은 “안타 치려는 생각으로 타석에 들어갔다. 부상에 주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쳤는데 넘어가서 기분이 좋았다. 풀까지 공이 다 간 뒤 홈런이라는 것을 알았다. 제발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빌

었다”고 웃었다. 하지만 이내 속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김태진은 “처음에 공 놓치고 집중하자고 했는데 실수가 나왔다. 진짜 기억이 지워졌다. 울 뻔했다. 나 때문에 게임이 넘어가는 줄 알았다. 계속 긴장하면서 경기했는데 다행히 투수들이 잘 막아줬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보 다카하시 '히트 상품' 예고

SSG와 홈경기서 데뷔전 호투 “한국야구 뛰어나고 흥미롭다”

타이거즈 첫 '육성형 외국인 선수' 보 다카하시가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르며 '히트 상품'을 예고했다. 다카하시의 지난 25일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SSG와의 홈경기를 통해 KBO리그 무대에 첫선을 보였다. 첫 실전은 '합격작'이었다.

이날 다카하시의 KBO리그 첫 상대로 추신수를 만났다.

우익수의 최원준의 좋은 수비로 추신수를 플라이로 처리한 다카하시의 이적범에게 2루타를 맞았지만 최정을 상대로 KBO리그 첫 탈삼진을 기록했다. 이어 최주환을 2루수 플라이로 잡고 1회를 끝냈다.

2회에는 볼넷으로 내보낸 선두타자 한유섭의 도루를 저지했고, 11구 승부 끝에 박성환에게 중전 안타를 맞은 뒤에는 안상현을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이재원의 중전안타로 맞은 2사 1·2루에서는 최지훈을 유격수 플라이로 잡고 실점 없이 2회를 끝냈다.

최정을 다시 한번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등 3회는 탈삼진 2개를 더한 삼자범퇴. 4회에도 첫 타자 최주환을 삼진으로 잡은 다카하시의 한유섭에게 볼넷은 내렸지만 2루 땅볼과 중견수 플라이로 등판을 마무리했다.

70구를 던진 다카하시의 최고 구속은 152km, 평균 구속은 148km, 슬라이더 (21개·최고 138km)를 중심으로 체인지업 (14개·132km), 포크 (5개·134km)로 타이밍을 뺏었다.

4일 입국해 자기격리를 거친 다카하시의 20일 라이브 피칭을 소화한 뒤 바로 마운드에 올랐다. 8월 19일 이후 한 달 여만의 실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대 이상의 피칭이었다.

“오랜만의 실전이라서 흥분되기도 하고 좋았다. 팀이 이겨서 행복하다. 동료들이 잘해줘서 이기게 됐다”며 “가장 다른 게 팬들의 응원이었다. 매일, 매 순간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셨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입장 허용 관중이) 30%밖에 안 됐는데 관중석이 딱 찬 느낌이였다”며 첫 등판 소감을 밝힌 다카하시의 “몸 상태는 99.5%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고, 그렇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추신수는 KBO에서는 물론 MLB에서도 슈퍼스타인데 그를 KBO리그 첫 타자로 만나게 돼서 영광이었다”면서 ‘발전’을 KBO리그에서의 목표로 이야기했다.

그는 “처음 KIA의 제안을 받고 놀랐다. 한국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일본 문화를 접하면서 컸고, 일본과 한국의 문화가 비슷해서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선수로서는 물론 사람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발전하기 위해 왔다. 한국 야구는 뛰어나고 흥미롭다”고 말했다.

윌리엄스 감독도 “첫 등판치고 괜찮았다. 가지고 있는 모든 구종을 나쁘지 않게 제구하며 스트라이크를 구사했다. 다음 등판에서는 85-90개까지 던질 예정이다”고 이야기했다.

외국인 선수들에게 중요한 ‘적응력’에서도 다카하시의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행을 결정하면서 “언어가 가장 걱정됐다. 많이 배워보려고 한다. 매일 좋아질 것이고 몇 달 안에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한 다카하시의 첫날 인터뷰가 끝난 뒤 “안녕히 가세요”를 배워 바로 실전에 사용하기도 했다.

합류와 함께 선수단에 녹아든 그는 KBO리그 데뷔를 기념해 26일에는 커피와 도넛을 돌리기도 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있다. 오늘도 선수단에 커피와 도넛을 돌렸다”고 귀띔을 했다.

마운드에서의 활기찬 에너지도 인상적이다.

다카하시의 “동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마운드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제스처를 취하면서 표현한다. 그래야 많은 승리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이 다”고 웃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영암출신 유해란, KLPGA 엘크루 대회 우승

영암군 금정면 출신 유해란(20)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엘크루-TV조선 프로 셀러브리티(총상금 6억원) 우승을 차지했다.

유해란은 26일 경기도 안산의 아일랜드 컨트리 클럽(파72·6613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2개로 5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 합계 13언더파 203타를 기록한 유해란은 최혜진(22)과 함께 연장전을 치른 끝에 우승 상금 1억800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유해란은 2019년과 2020년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서 연속 우승했고, 이번에 투어 3승째를 따냈다. 2020년 투어 신인상 출신인 그는 최근 3년 연속 1승씩 기록하는 꾸준한 모습을 이어갔다.

1타 차로 앞선 가운데 먼저 경기를 끝낸 유해란은 뒤 조에서 경기한 최혜진이 마지막 18번 홀(파5)에서 약 2m 버디 퍼트를 넣어 연장전을 치르게 됐다. 18번 홀에서 이어진 연장전에서 둘은 첫 홀 버디로 비겼고, 두 번째 홀에서는 유해란이 버디로 경기를 끝냈다. /연합뉴스